



한희원은 29일 열린 LPGA 코닝클래식 마지막 리운드 연장 4번째홀에서 이미지를 물리치며 우승을 확정짓는 뒤 기뻐하고 있다. /AP=연합뉴스

■ 금주의 프로야구



“이제는 선두권 진입이다” KIA타이거즈가 3연승을 질주하며 지난달 29일 이후 한달만에 4위로 복귀, 올 시즌 4강 진입의 희망을 밝히고 있다.

올 4승무패 절대우위 LG제물 선두권 도약

방망이 회복 KIA “이젠 상위권”

KIA는 시즌 초반 잘 던지다가 잠깐 흔들렸던 그레이싱어 등 선발투수진이 안정감을 되찾았고 이용규-이재주의 꾸준한 맹타에 힘입어 ‘스나이퍼’ 장성호와 ‘부상병’ 홍세완 등 그동안 침묵했던 팀 타선도 되살아나고 있다.

29일 현재 KIA 타선을 이끌고 있는 이용규는 타율 0.361, 53안타, 22득점으로 타격부문 선두에 올라섰고 이재주는 0.333으로 3위에 랭크됐다. 장성호도 최근 5경기에서 0.474의 불방망이를 가동중이다.

KIA는 팀 타선의 부활과 함께 중간계투, 마무리 요원인 정원과 윤석민, 장문석의 뒷문 단속도 완벽 그 자체다.

시즌 3승 4홀드를 기록중인 정원은 17경기에서 25이닝 5자책점, 방어율 1.73으로 믿음직한 가교 역할을 해내고 있다.

◇프로야구 중간순위 (29일 현재)

Table with 7 columns: 순위, 구단,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Rows include teams like 현대, 한화, 삼성, KIA, SK, 두산, LG, 롯데.

윤석민도 19경기 30.1이닝 3자책점, 2승 1패 1세이브, 3홀드로 방어율 0.89라는 완벽 피칭을 선보이고 있고 ‘뒷문’ 장문석은 12경기에서 9세이브를 기록하며 세이브 부문 단독 5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선발-중간-마무리로 이어지는 완벽한 마운드는 선두권 진입을 욕심내

에 부족함이 없다. KIA는 특히 이번주 초(5월 30~6월 1일) 올 시즌 4승 무패로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는 LG와의 광주 홈경기가 예고돼 있어 이 또한 선두권 탈환에 호재다.

KIA는 지난주 사직 롯데전에서 선발로 데뷔한 이상화와 한기주, 강철민을 차례로 마운드에 올려 최대한 승수를 쌓은 뒤 주말(6월 2일~4일)에 대구로 이동, 올 시즌 3승 3패로 호각세를 이룬 삼성과 총력전을 벌인다는 각오다.

현 선발 로테이션이면 삼성전에서는 KIA의 ‘원투펀치’인 김진우와 그레이의 출격이 예상된다. 타선의 지원만 뒤따르면 삼성을 제물로 선두권 입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병현, 본즈에 715호 홈런 헌납

서재응 2.20이닝 6실점 부진

유제국 1.1이닝 피홈런 4개

한국인 빅리거 선발 투수 3명의 사상 첫 릴레이 출격으로 ‘슈퍼 먼데이’ 기대를 부풀렸지만 아쉬움을 남긴 하루였다.

김병현(27·콜로라도 로키스)은 29일 AT&T파크에서 벌어진 샌프란시스코와의 원정경기에서 승리투수가 됐으나 ‘홈런왕’ 배리 본즈(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게 역사적인 통산 715호 홈런을 헌납했다.

반면 시즌 3승에 도전한 서재응(29·LA 다저스)과 빅리그 선발 데뷔전을 치른 유제국(23·시카고 컵스)은 극심한 부진에 분투를 삼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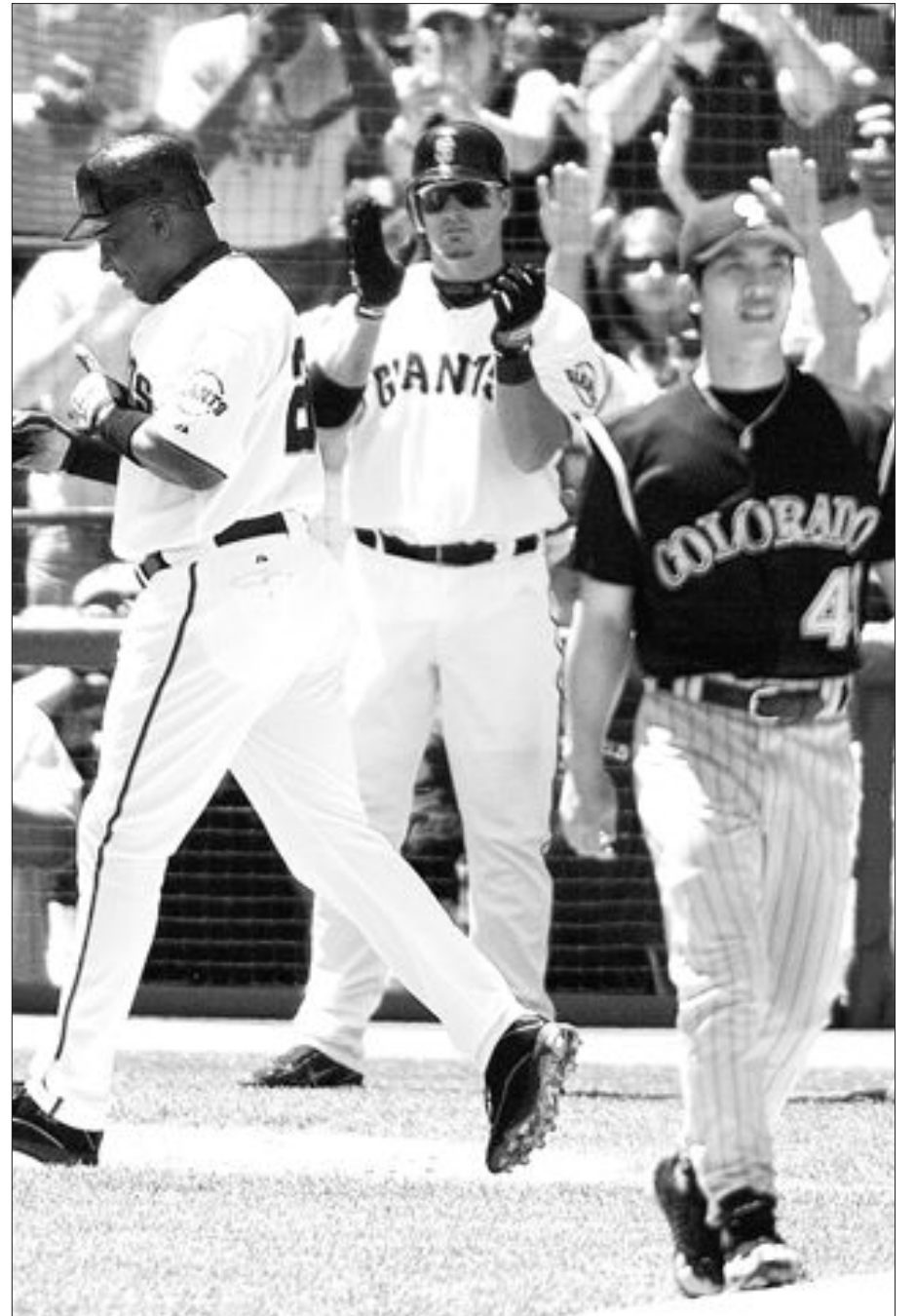
▲본즈의 홈런 행진에 희생양 된 김병현 김병현은 샌프란시스코와 경기에서 선발 등

판, 5.1이닝 동안 삼진 5개를 솜아내며 6안타 3실점으로 막고 팀이 6-3으로 이겨 승리 투수가 됐다. 시즌 3승 2패, 김병현은 그러나 6-0으로 크게 앞선 4회말 본즈에게 역사적인 2점 홈런 한방을 헌납했다.

▲올 시즌 최악의 피칭에 가슴 친 서재응 RPK스타디움에서 열린 워싱턴 내셔널스와 경기에서 선발 등판한 서재응은 2.20이닝 동안 삼진 3개를 뽑았으나 홈런 1개 등 7안타 3볼넷으로 6실점, 팀이 4-10으로 지면서 패전 명예를 썼다. 2.20이닝 6실점을 올 시즌 서재응의 최소 이닝 등판이면서 최다 실점 타이이다.

▲호된 빅리그 선발 신고식 치른 유제국 한국인 선수로는 8번째로 빅리그 선발 투수로 데뷔한 시카고 컵스의 유제국은 이날 리틀리필드에서 열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경기에서 선발 등판, 1.1이닝 동안 홈런 4개 등 7안타를 맞고 6실점했다. 팀이 8-12로 뒤진 9회 4득점하며 승부를 연장전으로 몰고 가 패전은 면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콜로라도 로키스의 김병현이 29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의 AT&T 파크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와의 4회말 무사 1루 상황에서 본즈에게 2점 홈런을 허용한 뒤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다. /AP=연합뉴스

한희원 극적인 우승

4차례 연장 접전...이미나 제쳐

2연속 준우승 털고 통산 5승째

LPGA 코닝클래식 최종

‘미시골퍼’ 한희원(28·콜로라도)이 최종일 4타자 역전에 이어 4차례 연장전 끝에 극적인 우승을 따냈다.

한희원은 29일 미국 뉴욕주 코닝의 코닝 골프장(파72·6천62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 골프협회(LPGA) 투어 코닝클래식 최종 라운드에서 4타를 줄여 함께 15언더파 273타로 이미나(25·KTF)와 동타를 이룬 뒤 연장전에서 이미나를 제쳤다.

3차례 연장전을 파로 비긴 한희원과 이미나는 8번홀(파4)에서 치른 4번째 연장전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이미나의 두번째샷이 그린 오른쪽으로 밀려났고 세번째샷은 홀을 3m나 지나쳐 보기로 먼저 돌아와야 하는 두번째홀에 그린에 붙을

올린 한희원은 편안하게 2퍼트로 파를 지켜 숨가쁜 승부를 마감했다.

작년 10월 오픈스탑 챔피언십 이후 7개월만에 통산 5번째 우승컵을 품어 안은 한희원은 특히 앞선 2차례 대회에서 연속 준우승에 머물 아쉬움을 털어냈다.

한희원은 이번 우승을 포함해 5개 대회 연속 ‘톱5’의 상층세를 이어갔으며 우승상금 18만달러를 받아 상금랭킹 3위(70만4천208달러)로 올라섰다. 2003년부터 4년 연속 해마다 우승컵을 들어 올린 한희원은 박세리(29·CJ), 박지은(27·나이키골프), 김미현(29·KTF)에 이어 통산 승수 4위를 굳게 지켰다. 또 한희원은 먼저 경기를 끝낸 이미나에 2홀을 남기고 2타나 뒤졌으나 17번홀, 18번홀(파4)에서 연속 버디를 뽑아내 승부를 연장전으로 몰고 가는 뒷심을 발휘했다.

이미나는 이날 6언더파 66타의 맹타를 휘둘러 리더보드 맨 윗줄에 올랐지만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고 준우승에 머물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송광중 창단 3년만에 전국 정상

협회장기 전국 남녀하키

광주 송광중학교 하키팀이 제 25회 협회장기 전국남녀하키대회에서 우승했다.

송광중학교(교장 안호선)는 28일 경남 김제고장에서 열린 남중부 결승전에서 경북 안양중을 2-0으로 꺾고 금메달을 따냈다.

송광중은 이날 전반 20분께 강기원(3년)이 필드골로 선취점을 올렸고, 후반 25분께

정수빈(3)이 골키퍼와 1-1 상황에서 히트슛을 성공시켜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지난 2003년 개교와 동시에 하키팀을 창단한 송광중학교는 비인기종목의 설움을 무릅쓰고 양준호 감독과 선수들이 일치단결해 개교 이후 첫 전국대회 우승의 쾌거를 이뤘다. 양준호 감독이 감독상, 정영근 코치가 지도자상을 받았으며 이혜성(3년)군은 대회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a real estate agent, featuring a photo of a family and the text '바람둥이 남편 덕에 6억 횡재한 아내 이야기!' with phone number 060-700-3658.

Advertisement for '프랑스 커피' (French Coffee), featuring a photo of coffee and the text '마시면 쏘~옥 빠지는 프랑스 커피'.